

알아두어야 할 어린이 응급처치법

이 익 준 ·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과

아기가 병에 걸렸을 때, 혹은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고를 당했을 때 엄마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의사의 진찰을 받기 전 우선 집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응급 처치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흔히 접하게 되는 영유아 질환의 특성 및 그에 따른 응급 처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는가?
-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가?
- 열을 동반한 경련, 의식장애, 구토, 설사, 발진, 기침 그외에 우는 상태나 식욕, 기분의 좋고 나쁨 등

<처치법>

○ 실내는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방안의 환기를 충분히 해준다. 땀을 잘 닦아주고 옷을 갈아 입힌 다음 조용히 잠들게 하거나 안정된 상태에 있도록 한다.

○ 보온은 좋지만 옷이나 담요를 너무 덥게 싸주면 안된다.

○ 고열이 있을 때는 체내의 수분 손실이 많으므로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보리차보다는 포도당과 전해질이 섞여 있는 음료가 좋다.

○ 거어즈나 수건에 물을 적서 가볍게 피부를 문지르면 열을 발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며 얼음물 또는 물과 알코올 혼합액은 과도한 증발로 인한 열손실 및 오한 등을 초래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경련을 일으킬 때

경련은 부모로 하여금 가장 놀라게 하는 증상이지만, 대부분 치료를 하건 하지 않건 간에 잠시 후엔 곧 멎는 것이 보통이다. 소아기에는 경련이 잘 일어나며 모든 소아의 6~7%가 한번 또는 그 이상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대개 1개월 미만인 신생아기의 경기는 출산시의 뇌손상이 원인인 때가 많고, 생후 1개월에서 3세 사이에는 고열로 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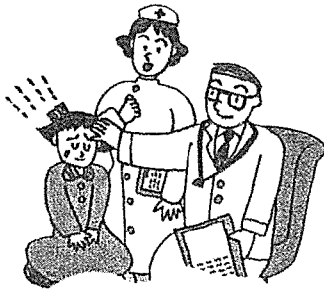
1. 고열이 날 때

열은 그 자체가 병이 아니라 어떤 병의 한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에서 보는 발열은 대부분 상기도염을 비롯한 바이러스성 감염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기도염에 의한 발열은 대부분 아기가 참을만 하며 3일 이내에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만일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고열이 4일 이상 지속된다면 폐렴일 가능성이 높다.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없으면서 고열과 함께 아기가 몹시 아파한다면 요로 감염이나 뇌막염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기가 고열이 있더라도 비교적 잘 놀고 잘 먹는다면 위험한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2세 미만의 소아가 열이 날 때는 경련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열에 대한 처치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의사선생님께 진찰을 받을 때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병의 진단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 언제부터 열이 났는가?



열은 그 자체가 병이 아니라 어떤 병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는 열성 경련이 가장 많다.

경련이 있을 때는 경기와 동시에 열이 있었는
지, 발작이 시작된 부위, 국소적인지 전신적인지,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을 자세히 관찰한다.

<처치법>

○ 경련을 하는 동안 입안에 토물이나 거품이
기관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가아제를 입 속에 넣어 입안에 있는 것을
닦아주도록 한다.

○ 안정을 취해 주고 의복을 풀어 속박을 없애
호흡을 편하게 해준다.

○ 1세 전후에는 고열로 인한 열성 경련이 많으
므로 열이 내리도록 미지근한 물로 찜질을 해주면
대부분의 경련은 얼마 후에 자연히 멈추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곧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 경기하는 도중에 약이나 그외의 것을 먹이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3. 구토를 할 때

구토는 소아과 영역에서 가장 흔히 보는 증상의
하나로, 별다른 이유 없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특수 질환이나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나
타나기도 한다. 구토와 달리 게우기는 식도나 위
내용물의 일부가 저절로 역류되어 나오는 현상으
로 생후 9~12개월까지는 식도 하단의 괄약근이
미숙하기 때문에 정상아에서도 흔히 발생되며 아
기가 다른 데는 별로 아픈 기색이 없고 잘 자라는

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영유아기 구토의 주요 원인은 감염성 질환으로
이에는 상기도염, 급성 위장염, 요로 감염증, 뇌막
염 등이 포함된다. 토물에 혈성 또는 녹색물질(담
즙)이 섞여 나온다면 이는 위장관 출혈이나 장폐
색 등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의사선생님께
보이도록 한다.

6개월에서 2세 사이의 건강하던 아기가 구토와
함께 주기적인 보챔(1~2분간 자지리지듯이 울다
가 약 5~10분간 무증상 시기 반복), 혈성 점액성
대변을 보이면 이는 장중첩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므로 지체없이 응급실을 방문하여야 한다.

감기를 앓고 나아가던 아이가 갑자기 구토를 하
면서 2~3일 후에는 혼수 상태가 되버리는 「라이
증후군」이라는 병도 있으므로 소아의 구토는 결코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되는 증상이다.

또한 부모님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구
토의 치료는 원인 제거 및 충분한 수분 공급이지
구토를 멈추게 하는 약으로 간단히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처치법>

○ 우선 얼굴과 몸을 옆으로 누이고 토한 것이
기도를 때우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 토한 다음엔 한두 시간 위장을 쉬게 하며 그
이후 아이가 요청할 경우에 소량의 물(약 15cc)을
주어보고 괜찮으면 15분 내지 20분 뒤에 약 30cc
정도를 먹이며 이후 점차로 수분의 양을 증가시키
도록 한다.



구토는 소아과 영역에서 가장 흔히 보는 증상의 하나로, 별다른 이유없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특수질환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기도 한다.

4. 심하게 울 때 (3개월 미만의 영아)

이것은 처음 아기를 길러보는 부모님들을 가장 당황하게 하는 증상이다. 대개 생후 1~2주부터 시작하는데 흔히 저녁이나 밤에 아기는 발작적으로 몹시 울기 시작하여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그냥 울어댄다.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배고픈 것, 과식, 피곤, 부적당한 수유법, 들이마신 공기, 가족의 긴장이나 불화, 소란한 주위환경 등이 생각되고 있다.

첫 아기에 오는 수가 많고 형제들 중에 변비증, 대장염, 천식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고 하며 대개 3~4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며 그 이상 지속되는 일은 드물다.

<처치법>

○ 아기가 젖을 먹은 후에는 반드시 아기를 바로 세워서 어머니 어깨에 걸쳐놓고 등을 가볍게 두드려 젖을 빨 때 들이마신 공기가 나오도록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 안이주고 살살 달래주면 우는 것을 멈출 수도 있다.

○ 고무 젓꼭지를 물려 주면 우는 것을 멎는 아기도 있다.

○ 따스한 물을 주어 본다.

○ 따스한 물병이나 고무 주머니를 아기의 배에 대어준다.

○ 우유병 젓꼭지의 구멍이 너무 작거나 또는 너무 크지 않은지 알아본다.

○ 환경이 너무 소란한 경우에는 조용한 환경을 마련해 본다.

5. 이물질을 삼켰을 때

젓먹이나 꼬마들은 단추나 땅콩, 동전, 안전핀 등 아무거나 잘 삼키는 버릇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별 무리없이 위장관을 거쳐 배설된다. 그러나 바늘이나 핀 등 뾰족한 물건을 삼켰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데려가야 하며 이러한 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경우는 격심한 기침과 함께 호흡 곤란, 청색증 등이 동반되는데 이것 또한 응급 상황이므로 즉시 응급실에 데려가도록 한다.

종종 입으로 체온을 재다가 또는 어린이가 체온계를 입에 물고 놀다가 체온계가 깨져서 그 안에 있는 수은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급속 수은이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된다.

<처치법>

○ 아기를 거꾸로 세워 등을 세게 두드리고 아기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 토해 내도록 한다.

○ 삼킨 물건을 밀어 내리려고 억지로 음식물을 먹이거나 설사시키는 약을 먹이는 것은 금물이며 건강하고 이상이 없을 때는 4~5일 동안 매일 변을 살펴서 배출되는가를 확인한다. 도중에 걸려 나오지 않을 때는 의사선생님과 상담하도록 한다.

○ 만약 구토가 심하고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다. **㉔**